

광주 우수 공예문화상품, 해외시장 공략 나선다

디자인진흥원, '메종&오브제' 참가 세계 최대 인테리어·디자인 박람회 광주공동관서 도자 등 50여개 선배 "지역 공예문화산업 육성·판로지원"

광주지역 우수 공예문화상품이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파리 노르 빌팽트 전시장에서 열리는 '메종&오브제(Maison&Objet Paris)'에 광주 우수 공예문화상품 공동관을 운영하고 있다.

파리 '메종&오브제'는 13만㎡ 규모의 전시관에서 매년 2500여 개 브랜드가 참가하고, 10만여명의 전문바이어가 찾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테리어·디자인 박람회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9월5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파리 노르 빌팽트 전시장에서 열리는 '메종&오브제(Maison&Objet Paris)'에 광주 우수 공예문화상품 공동관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디자인진흥원 제공**

이번 박람회 참가는 광주 공예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우수 상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도 메종&오브제에 참가해 미국 S사 등 100여건의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과 2억원 상담의 판매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디자인진흥원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더자기플러스 △소쿠리 △화탁공방 △에이앤즈협동조합 △수다도자기 등 광주 지역 5개 공방을 선정하고, 이번 메종&오브제 참가 준비와 해외 수출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왔다.

특히 이번에는 노르 빌팽트 전시장의 공예관(Craft section) 중심부에 36㎡ 규모로 광주 공동관을 조성하고, △도자 △섬유 △목공예 등 30여종 50여 품목의 상품을 선보였다.

더자기플러스(대표 정지운)는 대한민

국 공예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주병세 등 6종을 내놓았고, 에이앤즈협동조합(대표 임정하)은 '액막이 명태키링' 등 섬유상품 6종을 선보였다.

이 밖에 참여공방마다 다양한 공예 상품들을 출품해 해외 바이어와 관람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

송진희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은 "지역의 우수 공예문화상품이 해외시장에서 인정받고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역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판로지원을 위해 △수제공방 육성사업 △빛고을 핸드메이드 페어 개최 △오앤즈 브랜드 지정제 운영 △스타공예상품 개발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광주예선대회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상의, 양대 노총과 노사상생발전 모색

건설노동자·건설기계 활용 논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주" 일조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광주상의 임원, 양대노총 지도자, 광주시 간부,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공사 임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상생발전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상의에 따르면 노사상생발전 간담회는 지난 3월 광주상공회의소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한 한상원 회장의 4대 공약 중 일부인 노사 산업평화선언,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양대노총 지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4차 간담회는 지난해 들어 건설수주가 큰 폭으로 줄어든데다 고금리, 민간 분양시장 위축 등으로 건설업 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역시 12개월 연속 감소함에 따라 광주 지역 건설노동자·건설기계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최근 5개년간 7대 특광역시 노사분규 통계를 살펴보면 광주지역은 연평균 5.4건으로 인건 4.8건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의 노사분규 건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강성노

조라는 왜곡된 시각으로 대기업 유치가 어렵고 우수인재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종욱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은 "광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에 따르면 지역민의 우선고용과 지역자재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지역 건설노동자가 아닌 외국인 등 외부인력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공사 임원들은 "지역경제의 근간은 좋은 일자리 창출인 만큼 양대노총 의견을 수렴해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노조에서도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채화석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광주지역 인구유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유일한 길은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양대노총 지도자들과 대화를 통해 분규와 파업을 지양하는 산업평화선언을 이끌어내어 글로벌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주를 건설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금호타이어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

내일 조인식... 총파업 철회

금호타이어 노조가 사측과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가결했다.

8일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지난 5~6일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결과 '찬성'이 50%를 넘어 가결됐다.

투표에는 광주·곡성·평택공장 조합원 3546명 중 3257명(91.85%)이 참여, 1959명(60.15%)이 찬성의 뜻을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2일 교섭을 통해 기본급 3% 인상과 격려금 500만원 지급, 한국공장 미래성장·고용안정 등이 담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안 가결에 따라 금호타이어

노조는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10일 조인식을 열고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박소영 기자**

제 1136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21 33 35 38 42 44	1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23억1446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6171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59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대형마트들, 맥주·막걸리·와인 '단독 판매'

롯데마트, 뉴질랜드 와인 론칭 홈플러스, 해창 10도 막걸리 출시

고물가에 저렴하게 주류를 구매해 집에서 술을 즐기는 '홈술' 트렌드가 자리 잡은 가운데 대형마트들이 맥주부터 막걸리, 와인까지 다양한 주류 상품을 '단독 판매'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소맥 세트(소주 한 병+맥주 두 병)' 가격이 2만원을 넘어서는 등 외식 물가와 주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른바 '마트표 주류'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형마트는 가성비 주류를 단독 출시하며 경쟁에 나서고 있다.

먼저 롯데마트는 지난 4일 뉴질랜드

'빌라 마리아(Villa Maria)' 와이너리와 '셀라 셀렉션 소비농블랑' 단독 론칭 및 와인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 마팅을 진행했다.

'빌라 마리아 셀라 셀렉션 소비농 블랑'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가격으로, 전국 롯데마트에서 오는 30일까지 출시 기념 할인 행사를 진행해 2만4900원에 만날 수 있다.

지난 7월에는 국내 인기 사케(일본 청주)인 '간바레 오도상'을 대용량으로 기획, 오프라인 채널 단독으로 출시해 2만7900원에 판매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900ml 팩상품과 비교해 용량을 2배 늘리면서도 100ml 당 가격은 20% 낮췄다.

홈플러스도 해창주조와 협업한 신제품

'해창 10도 플러스'(용량 900ml) 막걸리를 단독 판매한다.

1927년 설립돼 약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해창주조는 땅끝마을 해남의 유기농 찹쌀과 1등급 멥쌀만을 사용해 막걸리를 생산해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유명하다. '해창10도 플러스'는 전국 홈플러스 매장과 일부 홈플러스 스프레스에서 1만29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해창막걸리 9도, 12도 제품도 함께 만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캔(500ml)에 1000원' 초저가 라거 맥주 '타이탄'을 출시한 바 있다. 초도 물량으로 준비한 7만캔은 '1인 6캔 한정' 조건에도 단 3일 만에 완판됐다.

나다운 기자

현대차 '아이오닉6', 美 매체서 '최고 전기차'

켈리블루북, 3년 연속 선정

현대자동차의 '2025년형 아이오닉 6'(사진)가 미국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인 '켈리블루북'이 선정한 '2025 최고 전기차'에 이름을 올렸다. 아이오닉 6는 지난 2023년 첫 선정된 후 3년 연속으로 최고 전기차로 뽑혔다.

켈리블루북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신뢰받는 평가 매체 중 하나로, 수백대가 넘는 신차를 대상으로 품질, 안전, 주행성 등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차량 관련 각종 비용까지 종합



적으로 평가해 부문별 최고의 차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켈리블루북은 △주행성능 △내장 △외장 △주요 편의기능 △주행거리 및 충전성능 △안전성 등 주요 항목들에 대한 수

백 시간의 주행평가를 거쳐 아이오닉 6를 2025 최고 전기차로 선정했다.

켈리블루북은 "테슬라 모델3의 강력한 라이벌", "매우 효율적이면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스타일리시한 전기차", "최대 361마일(581km) 거리의 주행거리에 18분에 불과한 충전시간은 현재 배터리 기술의 정점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했다.

아이오닉 브랜드의 두 번째 모델인 아이오닉 6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비와 넉넉한 1회 충전 주행 거리 △매끈한 유선형 외장 디자인과 사용자 중심으로 최적화된 안락한 실내공간 △차와 사람이 교감하는 다채로운 라이팅 기술 △역동적인 주행성능과 최첨단 안전·편의사양 등 우수한 상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박소영 기자**

광주신세계, 추석 고품질 청과 '셀렉트팜' 선배

광주신세계가 추석을 일주일여 앞두고 본관 지하 1층 푸드마켓에서 신세계 지정산지 청과인 '셀렉트팜'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8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셀렉트팜은 선택하디의 'Select'와 농장인 'Farms'의 합성어로, 신세계가 산지와 협업해 생산단계부터 수확, 유통까지 상품 품질을

직접 관리하는 지정농장 제도를 뜻한다.

셀렉트팜의 청과세트는 바이어가 전국 각지를 다니며 과일을 엄선해 뛰어난 맛과 품질을 균일하게 지켜내고 있다. 특히 고품질 과일을 엄선하기 위해 신세계 상품과학연구소에서 잔류 농약 검사 등의 품질관리를 생산자별로 진행해 더욱 맛있고 안전한 과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

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셀렉트팜 청과세트는 화성 금성농원, 성환 안양골영농조합(신고배), 양구 나린사과농원, 충주 충북원예APC(부사 사과), 김천 흥이농장(샤인머스켓), 용인 포도와(지중해 품종 포도), 영광 망고양양장(홍망고/청망고), 보은 명희농장(시나노골드) 등 전국 각지에서 선별된 과일을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셀렉트팜 사과배 11만5000원, 셀렉트팜 알찬 사과배 13만5000원 등이다. **나다운 기자**